

정책인터뷰 <<<<

개인개발계좌(IDAs)



Professor Michal Grinstein-Weiss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미국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종인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정책의 공동 연구자로 활동해 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회사업학과 교수인 미할 그린스타인 와이스(Michal Grinstein-Weiss) 박사와 개인개발계좌정책에 대해 이메일로 대담을 나누었다.

●●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정책

1. 개인개발계좌란 무엇입니까?

개인개발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 및 민간 기부

금이 더해지는 개인의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을 당시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전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빈곤층의 예금에 대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단계에서 본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예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으로 제공되어 저임금 근로자 가정의 저축을 장려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지역단체들이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형태로 지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희망자는 자산운영 및 기타 관련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정부 혹은 민간기관(NGO, 각종재단 및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상, 개인개발계좌정책 참여자의 자산형성

목적은 내집마련, 자녀의 대학진학자금 그리고 소규모창업 등으로 저축된 예금은 개인의 복지 및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Sheraden, 1988, 1991).

2. 과거,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출현에 기여했던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최초로 워싱턴대학교 교수이자 워싱턴대학 사회개발센터 소장이었던 마이클 셰러던(Michael Sheraden)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셰러던 교수는 미국의 사회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진보적인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사회정책이 1970년대 401(k)s, IRAs, 교육저축계좌 등 자산관련 정책으로 선회해 왔으나, 이제까지의 자산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이상의 고임금 가정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고안된 빈곤층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Sheraden, 2000). 셰러던 교수는 1991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자산과 빈곤'에서 개인개발계좌정책을 소개하면서, 본 정책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러던 교수의 저서 '자산과 빈곤'은 당시 미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적 토론장을 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셰

러던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복지정책이 비록 빈곤층에게 여러가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빈곤층이 자산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입/자산조사에 따라 수혜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복지 정책들은 규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벌을 부과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정책은 빈곤가족에게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본인을 위해 재정상황을 향상시키고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습니다(Grinstein-Weiss, Edwards & Wagner, 2005).

1990년대에 최초로 개인개발계좌정책이 시도되었을 때, 두 가지의 주변적 요인이 본 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Grinstein-Weiss et al., 2005). 첫째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회의 및 빈곤률 증가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기존의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위기에 빠져있고, 빈곤률이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에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이러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1990년대 미국의 지속된 경제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호황은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발달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이 개인개발계좌정책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힘없는 빈곤층 가족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3. 그렇다면 개인개발계좌정책 이전에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개인개발계좌정책 이전에도 미국에는 자산 관련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들은 중상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관련 정책들은 기존의 세금체계를 통해 집장만, 금융투자 및 퇴직자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Sherraden, 1991, 2005). IRAs나 401(k)s등의 퇴직자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혜택이나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세 감면정책 등은 미국정부가 어떻게 미국민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세금변제의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을 소유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관련 정책을 통한 혜택이 거의 없고, 따라서 자산형성의 기회도 전혀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Sherraden, 2005).

사실상, 미국정부는 중산층이상의 자산형성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정부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및 자산형성을 위한 인센티브에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출의 90%는 연간소득 5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Boshara, 2006).

4. 미국의 빈곤가정을 위한 한시보조정책(TANF)과 같은 소득보전정책과 비교할 때,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이제까지 실행된 빈곤과의 전쟁에 목표를 둔 공공정책들은 전통적으로 소득보조, 집세보조 혹은 기타 소비보조 등 기본적으로 정부가 빈곤층의 위기를 덜어줄 목적으로 소득보조금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많은 빈곤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성공한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도구로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Boshara, 2001).

소득보조정책의 한가지 단점은 저소득가정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의 당면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산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경제적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Sherraden, 2005). 개인개발계좌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주택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등,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축적된 개인의 자산은 자녀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대로 유전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깰 수 있다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ANF와 같은 수입보조정책의 또 한가지 단점은 엄격한 자격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수입보조금 수혜자가 자산을 축적하여 규정 자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 혜택이 삭감되거나, 아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Lowe & Weisner, 2004). 그러므로, 다분히 온건한 정도의 자산형성도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금 수혜자격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 정부보조와 저소득 가정의 부의 축적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Gruber & Yelowitz, 1997; Hubbard et al., 1995; Powers, 1998).

복지정책의 수혜자라는 부정적인 낙인은 수입보조정책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수입보조정책의 수혜자들은 타인에게 배척당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멸시 받거나 혹은 게으름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Rogers-Dillon, 1995). 반면에 개인개발계좌정책과 같은 자산형성지원정책은 수혜자가 직접 자산형성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참여자들은 그들이 이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

을 소유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개인개발계좌에 들어있는 저축금이 그들의 희망과, 안전과 자기 가족의 자신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Sherraden et al., 2005.; Shobe & Christy-McMullin, 2005).

현재의 시험단계에서 보여지는 개인개발계좌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현재 운영이 지역 집약적 프로그램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행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중앙집중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보조정책과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어떤 한가지 정책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장기적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이 일상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 정책이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수입보조정책과 함께 했을 때, 보다 포괄적인 삶의 전략으로 작용하여 빈곤층의 즉각적인 욕구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달성과 저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Sherraden, 2005).

5. 현재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미국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예산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민간기관등 세 종류의 출처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개인개발계좌정책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금이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연간 총 정부예산은 2억 2천5백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 중 1억8천5백만 달러 정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 의해 지원됩니다(Boshara, 2005). 1998년에 미국 의회는 독립자산법 (Assets for Independence Act: AFIA)을 통과시켜, 5년간 1억2천5백만 달러를 개인개발계좌정책 시범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승인했습니다. 2004년 300개의 개별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자료에 따르면, 독립자산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2005). 또한 중앙정부는 TANF 예산 여분을 개인개발계좌정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수령한 TANF 자금을 개인개발계좌정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Miller & Gruenstein, 2002).

또한 현재 개인개발계좌정책을 확대시킬 추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예산증가를 위한 법안인 근로 가족

저축법안(Savings for Working Families Act)이 2005년 하원에 상정되었고(S.922), 2006년에는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H.R.4571). 2005년도에는 빈곤층자녀의 예금계좌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투자, 퇴직 및 교육을 위한 저축법안(ASPIRE)”이 하원(S.868)과 상원(H.R.1767)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정부는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TANF 예산과 같은 중앙정부예산을 사용하거나, 주정부 일반수입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세금크레딧 정책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Miller & Gruenstein, 2002). 현재까지 미국 내 30개의 주정부가 개인개발계좌정책을 주정부차원의 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워싱턴 디씨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34개 주정부가 개인개발계좌정책을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n.d.). 개인개발계좌정책의 민간 기부금은 자선단체, 기업체의 자선 기부금 및 금융기관의 보조금을 통해 조성되며, 공공 기관과 비교할 때, 민간기부금으로 지원되는 개인개발계좌정책은 프로그램 제약조건이나 사후보고절차가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Miller & Gruenstein, 2002).

지원금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의 출처가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세부사항, 즉 목적, 구조, 지원금의 출처, 참여자 자격요건 및 지출방식 등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Miller & Gruenstein, 2002). 각 지원금 제공기관은 그들이 지원하는

개인개발계좌의 자금 사용방식 및 행정관련 사항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금출처는 지원금만을 제공할 뿐, 정책수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는 다른 곳에서 지원 받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곳은 수혜자 자격이나 예금사용처를 특별히 지정하기도 하며, 지원금 비율이나 사전 금융교육 실시 등, 프로그램의 수행방식에 대해 규정하기도 합니다.

6. 미국 개인개발계좌정책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The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CFED)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미에 500~1000개의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오천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습니다(CFED, 2005). 워싱턴대학 사회개발센터는 조사를 통해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개발계좌정책은 각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정부나 민간기관연합들이 기타 시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본 정책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n.d.).

개인개발계좌정책 참여자의 전체 저축액을 추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조사기관이 전체 참여자의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최초의 대규모 시범 프로그램인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ADD)의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개발계좌 정책은 저임금 가정 이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저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chreiner et al., 2002). 4년간 1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ADD에서는, 참여자 별 평균 월 순수 저축금이 19달러였으며, 평균적으로 12달 동안 6회 정도의 예금횟수를 보였습니다. 지원금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은 매년 평균 700달러를 저축했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인출된 저축예금은 내집장만(40%), 소규모창업(18%), 본인 및 자녀 교육과 직업훈련비용(22%) 그리고 퇴직 후 생활비마련(11%)에 지출되었습니다(Friedman, 2005, citing data from th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7. 참여자들의 삶에 있어서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심층인터뷰와 여러 지역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책 참여자들은 다수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및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McBride et al., 2003; Sherraden et al., 2005). 개인개발계좌정책 참여자들은 단기적 및 장기적 안정감의 증가, 스트레스감소, 자신감상승, 목표의 계획 및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책임감 및 시민의식 증대 등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저축금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이나 생활환경 고급화 등에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개발계좌정책 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답변자들보다 저축 능력 및 저축금이 증대되었으며, 자산투자 및 저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을 포함하여 높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자들은 저축을 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 자원이 될 만한 곳을 탐색하고, 소비효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 행동이 변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 중 한 명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증가 및 교육기회의 증진 등 긍정적 삶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8. 지원금 제공 비율은 정책참여율과 저축율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ADD 자료에 따르면 높은 참여자의 순 저축액 대비 높은 지원금 비율은 참여자의 프로그램 잔여율을 높이고, 장기적 목표가 아닌 기타 목적의 지출경향을 줄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지원금비율이 저축을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Schreiner et al., 2002). 몇몇의 연구에서 높은 지원금율이 저금 횟수를 높이는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Grinstein-Weiss, 2004; Zhan, 2003).

Schreiner(2005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원금비율은 개인개발계좌에 저축할 확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수 저축액이 100달러 이상인 참여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원금 비율은 참여자의 총 저축 금액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 비율과 총 저축량의 부정적 연관성에 대하여, Sheraden et al.(2003)은 세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예상 저축금에 상관없는 지원금 비율을 산정했을 경우입니다. 둘째로 참여자들은 지원금을 최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지원금 비율이 얼마이건 상관없을 것이라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저축목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덜 저축해도 높은 지원금 비율에 따라 지불되는 총 저축금의 혜택을 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원금 비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개발계좌정책에 참여하도록, 또한 목표달성시점까지 잔류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나, 저축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Schreiner, 2005a).

9. 미국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은 비용 효율적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개인개발계좌정책에서 파생된 모든 혜택을 다 문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얼마나 비용효율적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

다. 어떤 혜택들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수량화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 긍정적 효과들 또한 아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ADD 시범 프로그램 중 하나인 the Community Action Project of Tulsa의 경우, 참여자 한 명 당 매달 61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Schreiner, 2005b). 그러나, 이것은 개인개발계좌정책의 시범단계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연구, 정책관련성조사 및 기타 시범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Sheraden, 2002). 워싱턴 대학 사회개발센터는 개인개발계좌정책의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전체 비용 감소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평균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자 한 명 당 매달 45달러 이하로 추정됩니다(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n.d.)

개인개발계좌정책과 기타 사회복지정책들의 비용과 혜택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개인개발계좌정책은 기타 자산형성 지원정책인 401(k)s 과 IRAs 보다 많은 운영비가 소모됩니다. 대체적 추산에 따르면 정책소요비용은 모자보건정책인 WIC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슷하며 이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보육정책인 헤드스타트(Head Start)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Schreiner et al., 2006).

10. 개인적으로 미국의 개인개발계좌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미국의 개인개발계좌정책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본 정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시범프로그램인 ADD의 자료를 보면 빈곤층 및 극빈층까지도 제도적인 뒷받침과 저축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을 때, 저축이 이루어지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D의 참여자들은 매년 평균 700달러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Schreiner et al., 2002). 더구나 각 개인의 수입은 저축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저 수입의 극빈층 가정도 기타 가정들과 같이 성공적인 저축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DD 프로그램의 극빈층 참여자들이 개인개발계좌의 저축금을 내집장만,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직업훈련, 퇴직 후 생활비 마련 등 장기적 자산 관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Schreiner et al., 2002; Sheraden, 2002).

또한 본 정책의 참여자들은 경제행태에 있어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축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주의 깊게 쇼핑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인다든지 여가지출을 줄임으로써 돈을 절약합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소비뿐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함으로써 수

입을 높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참여자들은 개인개발계좌를 만들고 난 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McBride et al., 2003; Sherraden et al., 2005; Shobe & Christy-McMullin, 2005). 또한 매년 세금환급금을 저축하거나 아동보조금을 현금화할 때 개인개발계좌로 부분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축량을 늘린다고 합니다(Shobe & Christy-McMullin, 2005).

기존 개인개발계좌정책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재정적인 부분 이외 많은 기타 긍정적인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Sherraden et al., 2005). 참여자들은 행동, 신념, 감정 및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찰스(가명)라는 참여자는 ‘개인개발계좌정책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정책에 참여하기 전 제 삶에 일어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할 수 있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Sherraden et al., 2005).

이처럼, 개인개발계좌정책은 빈곤층이 저축을 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양식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창조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References

Boshara, R.(2001). Asset-building and IDA policies. In R. Boshara (Ed.), *Building assets: A report on the asset-building and IDA filed* (pp. 81-100). Washington D.C.: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Boshara, R.(2005).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Policies to build savings and assets for the poor* (Policy Brie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Boshara, R.(2006). The difference between getting and getting ahead. *Families in poverty* Retrieved April 16, 2006, from <http://www.demos.org/aroundthekitchentable/article.cfm?edition=016&article=asset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n.d.). Asset building: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from <http://gwbweb.wustl.edu/csd/asset/idas.htm>

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 (2005). Assets newsletter. from <http://cfed.motointeractive.net/publications/assets/Assets%202005%20Number%201.pdf>

Friedman, R. (2005). Hope in concrete form: The Downpayments o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Conception, contributions, challenges, and consequences (No. 05-37).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rinstein-Weiss, M. (2004). IDAs for housing policy: Analysis of saving outcomes and racial differences. Unpublished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Grinstein-Weiss, M., Edwards, K., & Wagner, K. (2005).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 The case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Working Paper No. 05-08).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Gruber, J., & Yelowitz, A. (1997).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savings (NBER Working Paper No. No. 604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ubbard, R., Skinner, J., & Zeldes, S. (1995). Precautionary saving and social insura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2), 360-399.

Lowe, E., & Weisner, T. (2004). ‘You have to push it - who’s gonna raise your kids?’ Situating child care and child care subsidy use in the daily routines of lower income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143-171.

Moore McBride, A., Lombe, M., & Beverly, S. (2003). The effec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s: Perceptions of participants (Working Paper No. 03-06).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Miller, M., & Gruenstein, D. (2002). *Encouraging Savings: Financing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s*. Washington, DC: The Finance Project.

Powers, E. T. (1998). Does means-testing welfare discourage saving? Evidence from a change in AFDCpolic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8, 33-53.

Rogers-Dillon, R. (1995). The dynamics of welfare stigma. *Quantitative Sociology*, 18(4), 439-456.

Schreiner, M. (2005a). Match rate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nd saving by the poor.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 13 (3-4), 112-129.

Schreiner, M. (2005b). What does and IDA cost? Some measures from add (CSD Research Report No. 05-38).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chreiner, M., Clancy, M., & Sherraden, M. (2002). *Saving performance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chreiner, M., Ng, G. T., & Sherraden, M. (2006). Cost-effectiveness in Individual

- Development Accoun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1), 20-28.
- Sherraden, M. (1988). Rethinking social welfare: Toward assets. *Social policy*, 18(3), 37-43.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Inc.
- Sherraden, M. (2000). From research to policy: Lessons from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2), 159-181.
- Sherraden, M. (2002).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Summary of research (Research Report). St.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herraden, M., Schreiner, M., & Beverly, S. (2003). Income, institutions, and saving performa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7(1), 95-112.
- Sherraden, M. (2005). Inclusion in asset building: Testimony for hearing on building assets for low-income families before the Subcommittee on Social Security and Family Policy, Finance Committee, U.S. Senate, Washington, DC.
- Sherraden, M.S., McBride, A., Johnson, E., Hanson, S., Ssewamala, F., & Shanks, T. (2005). Saving in low-income households: Evidence from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hobe, M. A., & Christy-McMullin, K. (2005). Savings experiences past and present: Narratives among AfricanAmerican women. *Affilia*, 20(2), 222-237.
- Zhan, M. (2003). Savings outcomes of single mothers i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Social Development Issues*, 25(1/2), 74-88. [GSST](#)